

전향적 시각으로 통일조건 제시

「두개의 한국, 하나의 미래?」

우리는 북한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 70년대나 80년대초의 인식수준에 비해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 바 없지 않으나 여전히 정확성과 객관성, 공정성의 면에서 턱없이 빈약하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북한원전이나 북한관계서적들이 과연 그들이 목표한 '북한 바로알기'에 정(正)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적지않은 경우, 정확하고 공정한 서술이기보다는 기존의 극우편향의 대극점에서 극좌편향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바로알려주기'보다는 또다른 혼란과 경사를 초래할 가능성도 지남을 부정하기 힘들 것 같다.

북한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이다. 환상적이고 무비판적인 찬양에서부터 극단적 비방과 폄하에 이르기까지 실로 엄청난 편차를 보여준다. 결국 '바로알기'에 장애로 작용하는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다. 통일의 한 전제로서의 '북한 바로알기'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벗어난 곳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반공논리가 남한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면서 국민들에게 끼친 영향이 지대한만큼 북한의 원전이나 '탈(비) 반공적' 서적의 대량 출판은 적잖은 충격과 지적 혼돈을 초래하였다. 아직 남한의 국민들에게 반공논리의 위력은 절대적이다.

남북의 평화적 통일은 분단이 비롯된 1945년 이래 이 민족의 역사적 과제로 되어왔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과 질곡이 분단의 소산이란 점에서 분단의 해소는 언제나 '현재적 역사'로서 민족의 삶전체를 규정짓는 숙제로 되어 온 것이다. 통일의 전제는 서로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인식과 애정어린 이해이다. 남과 북에서 수없이 제의됐던 그 많은 통일안들이 상대편화와 자기변명의 도구로밖에 전략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인식과 이해를

捨象한 반통일적 왜곡과 적대적 시각만이 지배했기 때문이었다.

AFSC(美친우봉사회)가 1981년~1983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일련의 남·북관계 세미나 결과를 엮어 펴낸 「두개의 한국, 하나의 미래?」(청계연구소, '88)는 이와같이 편협되고 왜곡되고 축소(과장)된 북한에의 인식들을 바로잡아주면서 통일이라는 궁극의 목표에 이르는 희망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다. 권위있는 서방의 각종 자료들을 인용·제시한 남·북의 주요 분야(정치·군사·경제)에 대한 정보는 객관성이나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면에서 신뢰를 준다. 최근의 반미기류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논거와 연원을 지니는 것임도 알게 해 준다.

이 책은 일관된 논리로 남북상호간의 왜곡된 비방이나 끊임없는 군비경쟁, 핵무기의 온존과 주한미군의 존재 등이 전쟁의 위험성만을 가중시킬 뿐 결코 통일에 도움을 주지 못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다. 풍부한 자료제시와 우호적·전향적 시각으로 통일의 국내적 조건(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과 국제적 조건(미국의 대한정책의 획기적 전환, 중·소·일 삼국의 적극적 통일지향적 조치들)을 제안한 AFSC의 시도들은 말로만 통일을 외는 남북의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이땅의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친우'의 조언으로서 주목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김상현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5구 593

미국 항구도시의 밑바닥 삶

헤밍웨이의 「가진 자와 안가진 자」

헤밍웨이는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이다. 「무기여 잘 있거라」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노인과 바다」는 누구나 한번쯤 읽어봤거나 영화를 통해 헤밍웨이에 대해 초보적이거나 알게 해준 작품들이다. 헤밍웨이의 작품을 보면, 작가 특유의 문명과 지성에 대한 차가운 불신과, 온기를 느낄 수 없는 건조한 문체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고스란히 옮겨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작가가 작품과의 거리를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유지함으로써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여유도 느껴진다. 그럼으로써 독자들에게 고른 숨소리처럼 편안함을 전한다.

「가진자와 안가진자」(덕성문화사, '89)는 헤밍웨이의 문학을 전기와 후기로 나눌 때 그 과도기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한다. 1937년에 발표된 이 작품을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1928), 「무기여 잘 있거라」(1929)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1940) 등이 사이에 놓여 사회참여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소설은 미국의 해안가 항구도시를 배경으로 해리 모오건이 작은 배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29년 경제공황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생계수단으로 주변의 가난한 나라들과 암거래를 자행하는 등의 미국사회의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다. 해리 모오건은 생계를 위해 법을 어기면서 암거래를 하고 살인마저 마다하지 않는다. 주인공 주위의 뱃사람들의 거센 기질이 잘 묘사되고 있어 미국사회의 생활상을 볼 수 있다.

또한 소설의 제목에서 연상되는 빈자와 부자의 대립이 외형적으로는 두드러지지 않는

다. 그러나 빈자들의 가슴 속에 뿌리깊게 자리한 가진자들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읽을 수 있다. 이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을 때 가진자들은 호화요트에서 즐기고 있는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현상적으로는 충돌이 일지 않지만 갈등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안가진자들끼리는 가진자들에 대하여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려움에 처해진 동료들 위해 경찰을 속이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광범한 연대의식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동료간의 의리와 미움이 혼재한다.

무엇보다도 해리 모오건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이유는 그의 가정을 위해서임이 주목된다.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라는 미국인의 사고방식을 다시 생각케 한다. 쉽게 사랑하고 헤어지는 것이야말로 미국적인 사랑법이라는 생각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부정된다.

남충진

서울 도봉구 우이동 148-3·회사원

(단색) 스캐너 를 아십니까?

進光文化社 ☎ 265-4726, 266-2091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2-23

—저렴하고 깨끗한 품질로
이젠 전자 시스템으로 사용할
시기인것 같습니다.

-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작업
- (즉석)포시, 네가 필립 사용
- 포시를, 네가 가격으로
- 2度분해에서—기타 다양한 기능
- 종전과 똑같이 글씨가 선명하고 깨끗함
- 영구적 Film 보관

寫眞製版

— 전문메이커 —